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음 윤5월 24일) 제18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프랜차이즈 갑질 솜방망이 처벌이 주범

3년간 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갑질' 사건 0건 "처벌 수위 더욱 높아야" 지적 목소리 커져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가맹본부 갑질' 사건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인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다.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행위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너무 가벼운 처벌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은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F&B의 경우 지난 2014년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수익률 과장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건'으로 불거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검찰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증설을 제시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도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재홍 기자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소민 전북교육감이 14일 전북 전주지법 2호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결정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민들이 지난 4월 청원한 후 석달만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게 된다. 익산시는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추가자료 제출과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는 환경·건강자료 조사와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김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형

700만원... 직위는 유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소민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우려해 이 사건 지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국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교육부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모두가 태권도로 하나되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식 개최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13일부터 18일까지)개막식이 지난 15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무주군 황정수 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장동영, 김광수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최동열 조직위원장과 유병용 태권도 원로를 비롯한 전북지역 태권도 원로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찾은 2천 9백 여 명의 선수단과 사범, 심판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무주 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주=전문선 기자

13일부터 무주에 들어와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14일부터 합동 훈련과 태권도 세미나, 태권도 체험에 참여하며 실력을 연마했으며, 국제오픈태권도경연대회(시범, 품새, 겨루기)를 통해 기량을 뽐냈다. 15일과 16일에는 국제오픈생활무용대회와 국제오픈줄넘기대회, 국제오픈장기자랑대회가 열려 엑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매일 밤 한 여름 밤의 콘서트가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폐막식(오후 7시부터~)이 열리는 17일에는 무주군의 반디랜드와 머무와인동굴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만금 개발 '골든타임 잡아라'

진홍 정무부지사, 사업현장서 "사업 예산 증액·반영돼야"

전북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지난 14일 새만금산업단지, 동서도로공사 현장, 고군산연결도로, 농업용지 매립공사현장 등 새만금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새만금개발청 현장 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에 혼동이 없고 있는 기회를 심분 활용하여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속도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릴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새만금은 청와대 정책실의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공공주도 매립전환,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 새만금이 원활히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새만금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선도매립,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인프라 조기확충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간소화, 국가예산반영, 2023 캠퍼리 유치지원 등"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사업 예산이 5천억원 가량 증액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원택 대외협력국장, 청와대로

이원택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원택 국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됐다. 이에 이 국장은 오는 1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발령은 나지 않아 당분간은 파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제일

처럼 누리고
처럼 살아라!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

7월 14일 GRAND OPEN

84㎡, 142㎡, 147㎡ 총 198세대

문의 582-5800

www.buano2grande.com

| 모델하우스 | 부안읍 봉덕리 523-1(동충동학교 사거리)